

시니어취업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

글 박주임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국장



시니어를 원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일을 새로 가르치는 수고로움이 적고, 일을 대하는 소명 의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시니어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는 살아온 과정이 다른 것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 낮은 디지털 활용 능력과 체력에 대한 염려 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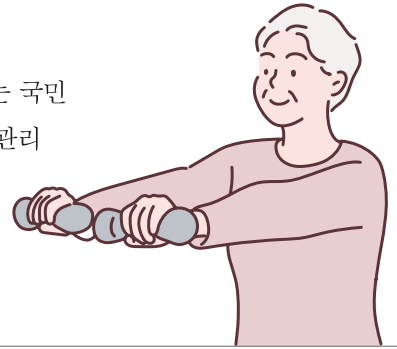
2~30년간 활동하던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수많은 시니어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한다. 그들은 그간의 경험과 지식, 사회적으로 누렸던 지위를 활용해 구직 신청만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찾아오거나 취업상담원의 안내 및 구인처의 요구와 상관없이 무작정 알선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다.

구인처에서는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시니어를 채용하고자 하면서도, 시니어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며 젊은 직원들과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편견 때문에 시니어 채용을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다.

국민체력100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하면 70대도 30대 못지않은 체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민체력100’을 운영하고 있다. 무상으로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력 측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민체력100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나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체력을 길러 기업의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재취업에 임하기

노년기 일자리는 소득원인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나 시니어취업지원기관에서는 시니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재취업에 접근하려는 시니어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선 재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시니어들은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면접관의 권위적 어투와 태도에 상처받기도 하며 사회적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가지기도 하며 고령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의식하면서 절망에 빠진다. 일자리를 찾다 보면 ‘이런 일을 하기에 나 자신이 아깝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다리다 보면 더 나은 일자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더 필요한 때다.



밝은 미소와 존중의 말씨는 기본

모든 사람에게 미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밝은 미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예쁘고 멋있던 얼굴에도 어느덧 주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다면 주름살은 경륜의 상징으로 돋보일 수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상도 남길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길 원한다. 가끔 우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젊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구직자의 자세에 맞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어물치 못한 이삭은 고개를 뺏뺏이 들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존중의 말씨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수용에서 비롯된다. 존경과 수용을 기억하고 구직활동에 임하면, 곧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